

## 협치 성북 민간 집담회 기록

일시 : 2016년 8월 30일 14시

장소 :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3층

참석 : 방명록 참조

사회 : 김기민

기록 : 최연희 / 정리 : 김기민

- 집담회 취지 설명 - 14시
  
- 자기소개 - 14시 10분
  
- 협치서울추진단 김창주 설명 - 14시 30분
  
- 집담회 논의 - 14시 40분
  - 각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내가 겪어본 협치 경험 나누기
    - 신근정 - 녹색연합 :
      - 2012년 서울시 에너지전환을 위해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 - 에너지 줄이고, 태양광 설치하고 행정이 직접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해서 위원회 꾸려서 대응
      - 2011년 성북구에서 온실가스 없는 성북 만들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비전을 먼저 수립함
      - 아파트단지입주자대표와 관리사무소, 그린리더 에너지 컨설턴트 등과 함께 에너지 절약 목표 설정, 타운홀미팅, 35개 아파트, 18개 동, 5개 학교에 속한 녹색환경실천단 주민들이 등 교체, 태양광 발전기, 절전소 등으로 활동 이어져서, 환경과와 함께 매월 회의, 연 2회 아이디어 모이기, 주민참여사업이나 구에 정책 제안, 연말에 사례 공유
      - 4년 지나니까 환경 활동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음

- 송민기 혁신교육추진단장
- 김희자 정릉2동 마을계획단장
  - 6월 시작해보니까 동교동락, 동지역회의, 마을계획 등 너무 바쁜 일정이다.
  - 자치위원회는 협치 집담회 오는거 안가려고 한다.
  - 마을계획단 주민들 모임 가져야 한다.
  - 이미 시범하고 있는 동 주민들끼리도 만날 기회가 없다.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협치 시작이다.
  - 불안하다.
  - 직능단체는 관심없어 한다.
  - 마을계획단만 혼자 이리뛰고 저리 뛰고, 강건너 불구경한다.
  - 성북은 변화가 너무 빠르다.
  - 새로운 것을 계속 발굴하고, 진보적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이미 형성된 마을계획단부터, 왜 우리가 마을민주주의로 가는지, 왜 협치해야 하는가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밟아가자.
  - 마을계획단도 협치 성북의 한 일원으로 협치의 성공으로 나가자
- 종암동 마을계획단 복지분과위원장 이명수
  - 협치는 민간이 주도, 주민참여 제도
  - 관의 협조가 필수다. 주민참여와 마을계획이 분리되어 있음
- 사회자 부연 : 협치는 그간 시도되었던 민관 협력 분야의 다양한 사업, 활동, 제도를 운용하는 '방식'으로서 논의되는 것이지 특정한 사업이 아님.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을 다루는 이념이자 그 과정임.
- 김창주 답변
  - 협치 기반 조성이다. 예산은 있다.
  - 부서에서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 마을계획예산은 참여예산이 기본이다.
- 박현진 협동조합 누리마실 친구들
  - 5월 누리마실 축제 준비하면서 만들어진 협동조합
  - 세계음식누리마실 축제준비를 하면서 민간 준비팀 꾸려져.
  - 구 예산을 쓴다고 해서 행정 주도라고 보면 안된다.
  - 협치가 민관, 민민을 구분할 수 있는건가?
  - 주민의 영역을 확장해서 생각해야 한다.
  - 활동가이면서 주민이다.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역 안에서 활동을 풀어내고 의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장이 되기 바란다.

- 삼선동 마을계획단장 임복희
  - 단장된지 3개월. 정말 뭘 모르는 상태. 지난 설명회와 오늘 자리에서 보면 마을계획단이 열심히, 그냥 지나쳤던 관심을 단원이 되면서 동네 곳곳에 관심있게 살피고 있다.
  - 우리가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제안을 내면 이게 실행이 되면 보람이 있을거라고 단원들에게 이야기하지만 부서검토 해보면 너무 형식적이더라. 좀더 구체화시키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는 구조다.
  - 단원들에게 힘을 주지 못한다. 김이 빠진다.
  - 그 동안 주민은 공무원들이 해주면 따라만 갔는데 이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민주주의를 추진하면서 능동적으로 주민들이 일어나서 참여하고 실행해보고 있지만 기쁨도, 만족감과 보람도 느끼는 것이 아직은 되지 않고 있다. 이 수준에서 협치를 한다는 것은 탁상공론이다.
  - 각자의 영역에서 먼저 잘 해내고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한 후에 자연스럽게 협치를 가야 함
- 마을지원활동가 김정연
  - 협치의 개념을 읽어보니 천만시민이 시장이 되고 부서칸막이 허문다. ?????? 이런 말에 불신이 든다.
  - 마을지원활동가로 올해고 5년 이상 마을사업지기로 활동. 씨앗기부터 좀더 발전하는 단계로 진행되어 왔다.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만들어져 있다. 사업지기들이 협치 안되고 있다. 네트워크 노력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예산은 우리 맘대로 써도 되나? 기존의 것들을 내버려두고 새로운 판을 벌이는 것? 현재 있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일이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지 한참 되었는데 왜 주민에게 공유하지 않는가?
  - 오래 준비해야 한다. 급급하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김종건 길음1동 마을계획단장
  - 집담회 전에 각 분야, 단체별로 준비모임을 갖고 했어야 한다. 우왕좌왕하고 있다. 기존 활동했던 사람들의 발표회장같다. 설명회 때 지적했는데...
  - 길음1동이 시범동이다. 정신없이 작년 1년 지났다. 실험대상이었다. 홍보 부족, 이해 부족

- 직능단체와의 협력은 커녕 갈등이 있다. 역할, 관심이 겹친다. 알력들이 형성된다. 이런 것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나름대로 길음동은 협력하고 있다.
- 운영경비가 없어서 회비 걸어야 - 회원들 불만, 임원 주머니에서 나감
- 참여 한계성 있다. 회의가 너무 많아서 피로도가 엄청나다. 주민들은 수십번 회의해서 결정한 내용이 부서검토는 책상에서 간단하게 안된다고 나감
- 새로운 팀장님은 두달이 되었는데 아직 인사도 제대로 못했다. 이래도 되나? 마을계획단 만날 자리 만들어 달라.
- 주민들에게 인식되는 시민단체는 인권운동 사회운동이라는 개념이다. 협치추진단에 시민단체 출신이 자문이고 위원으로 들어간다.
- 하나의 시민단체 만들고 지원한다고 생각되는데???
- 박정근 정릉 아리랑시장 사무국장
  - 민간이 들어가기 힘든 구조다. 봉사정신 없으면 힘들다.
  - 탁상이다. 협치가 이런 식은 아니어야 한다. 현재 문제부터 고쳐야 한다. 전문가들은 잘 모른다. 무슨 결정은 다 탁상에서 전문가, 단체 위주로..
  - 직능단체 15개 넘는다. 동별로. 마을계획단 활동과 연계도 없고 시선이 곱지 않다. 이 문제부터 풀자. 구, 시의 협치는 지금 너무 빠르다.
- 즐거운교육상상 안영신
  - 6월부터 서울시 공모 협치 사업을 진행 중 - 인권교육 의제
  - 주무부서 찾는 것부터 난항. 담당자가 사업에 대한 이해가 없다. 공모사업이어서 주무부서 만날 일도 없는 형편이다.
  - 기존에 네트워크, 협치 준비된 분야와 부서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다. 행정에서도 협치 의제에 대해 이해가 서로 다르다. 이해가 없거나 반감이 있기도 하다.
  - 신뢰와 협력을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꾸준하고 지속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절차의 공정성 보장되어야 한다. 제도화까지 끌고 가야 하는 것이 과제이다. 제대로 밟아가는 과정을 찾자.
- 홍수만 성북마을살이연구회 대표

- 주민자치위원회부터 주민참여예산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협력 5년 이상 진행 중. 민과 민의 협력, 소통, 네트워크 잘하고 있나?
  - 행정은 예산결정권, 집행 권한이 있다. 때문에 행정의 흐름을 민간이 조정하기 어렵다.
  - 일방적인 행정주도가 강했다. 행정은 물론 민간도 지속적인 성과주의로 갔다. 거버넌스를 논하기 전에 민간에서 분야별로 다양한 활동을 평가하고 소통하는 것이 먼저다.
  - 일반주민들이 거버넌스 진행한 분야별 평가, 대안마련을 해보자. 협치가 안된 이유를 세밀하게 논의하고 판단해볼 자리 마련하자.
- 이원재 공유성복원탁회의
    - 공탁은 4년 정도, 자발적인 문화예술인 모임 200여명?
    - 동네모임을 가면 왜 혼나는 기분이 들까?
    - 민민협력의 핵심은 주변의 동료와 주민의 선입관을 버리는 것이 먼저겠다. 서로 다르다고 규정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포용? 하는 태도 필요
    - 비난 오가면 사람들이 나가고 지원사업, 이해관계가 강한 사람들만 남게 된다.
    - 협치는 그런 것을 없애는 과정이다. 뿌리깊게 내려온 지역사회 이권, 선입견, 주민간 갈등 조장하는 행정을 없애는 것,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 내는 것 아닐까. 공탁은 성복 안에서 그런 가능성을 함께 하고 싶다.
  - 한정혜 정릉2동 마을계획단 교육문화분과위원장
    - 이해하지 못하는 자리였다. 처음에는 마을일 경험이 길지 않다. 학부모 활동을 먼저 했다. 여기서 연계되어 마을일을 하고 있다.
    - 마을계획단 일을 하면서 직능단체, 학부모, 단체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이런 주민들과 같은 주제로 이야기할 방법을 듣게 될 것이라 기대했으나 오늘 자리는 그렇지 않았다.
    - 동지역회의를 하면서 계획단과 다른 주민들과 함께 구성되어 몇차례 회의와 주민투표도 의무적이지 않았지만 진행했다.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논의하는 과정. 내가 제안한 안건을 진행되었는데 부서에서 검토되어 피드백 무한 반복, 진이 빠졌다. 주민은 전문가가 아닌데, 현장 가보고 고치고 또 고치고, 될때까지.. 구청 직원이 회의 장소에 나와줬으면 덜

고생하지 않을까. 논의와 실행에 대해 담당부서 직원들 협조해야.

- 어떤 경로든 많은,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들을 방법을 찾는 것이 협치에서 제일 중요하다.
  - 종암동 마을계획단장 이상윤
    - 내실있는 것 하나라도 만들자. 민관 연결고리가 되는거지 연간 단체 하나 만들고 말고 나몰라라
    - 협치가 마을계획단하고 뭐가 다른가? 매년 주민들의 마을계획단화시키자는 것이 목표다.
  
- 참관인 발언 : 성북구청 마을민주주의과 마을기획팀장
  - 8개 마을계획이 진행중이다.
  - 올해 하반기에 마을계획단 거버넌스 구성 예정하고 있다.
  - 마을계획과 협치가 겹쳐진 것으로 보이지만 마을계획단 진행 중이어서 혼란이 좀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정 자체가 마을민주주의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 부서검토 어려움은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
  
- 후속 논의 참여 (향후 모임 공동주최단/기획단) - 15시 40분
  - 성북마을살이연구회 : 홍수만 대표
  - 장수마을 주민협의회 : 배정학 대표
  - 함께하는 성북마당 : 서정례 상임대표
  - 함께살이성북 사회적협동조합 : 박학룡 이사장
  -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 양현준 센터장, 박영주 찾동 추진지원단 마을팀장, 김정연 마을지원활동가
  - 마을계획단 연합(가칭, 미정) : 김희자 정릉2동 마을계획단장 (보문, 정릉2, 종암, 길음1, 삼선동 마을계획단 대표)
  - 협치성북 민간 집담회 준비모임 : 김기민 활동가
  - 혁신교육추진단 : 송민기 단장
  - 전통시장 6개 모임 : 박정근 아리랑시장상인회 사무국장
  - 녹색연합 : 신근정 활동가
  - 누리마실친구들 협동조합 : 박현진 이사장

- 공유성북 원탁회의 : 이원재 운영위원
  
- 후속 논의 - 16시
  - 오늘 집담회, 이후 모임들이 사업 설명회인지 본격적인 협력 전 환경 구축을 위한 자리인지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공유성북 원탁회의 이원재)
  
  - 집담회 준비모임에서 오늘 행사 준비를 위해 논의하면서 내린 원칙은 협치에는 용어에 대한 이해, 정책 추진 배경 등에 대한 이해가 먼저지 관계된 사업을 설명하는 것이 우선 되어선 안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지난 16일 민관 설명회를 봤을 때 사업 설명 중심으로 진행되니 관한 오해와 혼선만 불러일으켰다. 그 때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집담회는 협치가 무엇인지 모르고 어떤 맥락에서 제안되고 있는지 지역 주민들이 전혀 공유받고 있지 못한 상황에 대한 문제 의식에서 시작된 것. 오늘 집담회나 향후 모임이 사업 설명회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사업,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안내는 그 뒤에 고민할 문제다. (준비모임 김기민)
  
  - 앞으로 분야별 간담회, 2차 집담회 등이 진행되겠지만 모임을 가질 때마다 주민들의 이해도가 비례해서 높아지진 않을 거다. 같은 말을 또 반복하는 과정이 이어질 것이고, 그것은 어쩔 수 없다. 논의할 때마다 새로운 분들이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준비모임/혁신교육추진단 송민기)
  
  - 분야별 간담회 추진
    - 마을계획단 간담회
      - 각 동 마을계획단 아우르는 8개동 마을계획단 연합(가칭) 조직 논의 진행. 이후 마을계획 분야 간담회 추진 논의.
      - 연합 측 연락 담당 : 정릉2동 최연희 마을코디네이터
      - 8/30 이후 진행 상황 공유
        - 8개동 마을계획단 단장 사전 모임 9/6(화) 점심
        - 단장 사전 모임 후 각 동별 마을계획단 전체회의에서 협치성북 민간 집담회 내용 공유 및 후속 논의 진행/참여 관련 공론화 예정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대상 설명 : 마을기획팀 은현기 팀장 통해 자리 마련.
    - 후속 모임 관련 회의 종료 후 별도 연락 사항 공유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9/6(화) 19:00 전체회의 전 30분 활용하여 임원 대상 진행
      -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 9/19(월) 회의 전 임원 대상 진행
  - 주거환경관리·도시재생 / 사회적기업 분야 간담회 추진 : 함께살이성북 사회적협동조합 박학룡 이사장
  - 혁신교육 분야 간담회 : 혁신교육추진단 송민기 단장
  - 마을만들기 사업 및 마을공동체 활동 분야 간담회 : 모여라 성북마을, 함께하는 성북마당(마을넷), 성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 통해 진행.  
마을사회적경제과-마을사회적경제센터-함께하는 성북마당과 협력  
※ 성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의 경우 성북구 외 동북4구 지역 단체들도 참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사전 안내 통해 성북구 활동 단체들 중심으로 간담회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 필요(홍수만)
  - 녹색연합-절전소협의체-구청 환경과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조직 관계자 간담회 : 협의체 월례회의 시간에 진행 가능한지 확인 후 추진. 실시하게 될 경우 타 분야 사례나 경험 공유 필요함.  
협치서울추진단 측에 발표 요청하는 것 고려.
  - 기타 분야 간담회 : 유사 분야와 함께 진행하거나, 기타 분야 별도로 진행하는 방안 중에 고민 후 결정
- 9월 분야별 간담회 추진 계획 표준안 작성/공유 : 김기민  
※ 기획단에서 검토 거치고, 이후 각 분야별로 특성에 맞게 가감/변환하여 활용
  - 9/6(화) 협치 성북 추진 민관 TF 회의 개최는 계획된 바이긴 하나 반드시 해당일에 추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 분야 논의들이 좀 더 진행된 이후에 민관 TF 회의 개최에 대해 추후 논의하기로 함.
  - 9월에는 분야별 간담회 진행하고, 10/5(수) 2차 집담회 개최하기로. 시간 장소 미정이며 추후 기획단 내에서 논의/확정하여 공지.
  - 협치조정관(5급 상당 시간제 공무원) 1인 채용, 협치지원관 2인 채용 예정.  
(마을기획팀장 은현기)